

# 대학생들의 안보위기와 관련된 보훈인식도에 관한 연구

김태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보훈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교육지원법 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별 보훈인물 인식도 수준 분석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2.6점 여자 2.3점으로 남자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p < 0.001$ ). 세대별 분석에서 단신세대가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3세대 2.4점, 2세대 2.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전공별 인식도를 분석은 인문사회 계열이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 2.4점, 보건의료계열 2.2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 $p < 0.001$ ). 학년별 인식도는 4학년 2.7점, 3학년 2.4점, 1학년 2.2점순으로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 분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5$ ). 부모 직업에 따른 인식도 분석은 무직이 2.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 2.4점, 농업 회사원 각각 2.3점순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 수준은 아니었다. 보훈 및 역사과목 수강 경험별 분석에서는 수강 경험자가 2.8점, 비수강자 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p < 0.001$ ). 주거형태별 분석에서 전세가 2.6점, 월세 2.4점, 자가주택 2.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종교별 인식도 분석은 개신교가 2.5점, 카톨릭 2.4점, 무교 2.3점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보훈의식, 기념일, 보훈기관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3년 7월 27일은 한 치의 땅이라도 되찾겠다고 3년 동안 조국의 젊은이들이 피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너무나 큰 상징적인 해이다. 2010년도 이후 한반도의 국내정세는 천안함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최근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의 폐쇄 등 수위 높은 북한의 전쟁위협과 국지전 도발로 인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대외정세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의 심화, 일본과 중국 간의 조어도 영토영유권 문제 등 많은 국내·외적 혼란 속에서 무엇보

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들의 보훈에 대한 존경심과 인식도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시기이다. 보훈의 개념은 최근 여러 학자들에게 논의되고 있는데 유재왕(2003)은 보훈이라 함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부모·형제·이웃과 조국을 지키고 빛낸 분들의 뜻을 국민의 이름으로 높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의미로서 보훈의 개념은 국가 이익 기여자에 대한 국가의 보답 또는 그러한 행위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으며(김중성, 2005), 광의로서의 보훈의 개념은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수행하다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하여 나라가 실행하는 정책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운석, 2011). 이를 종합해 정의해 보면 보훈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분들과 그 유가족, 미망인들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인 충분한 보상을 근간으로 보훈예우, 선양, 의료, 복지, 재활, 교육, 취업,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향후 보훈의 미래지향 패러다임은 정신적 예우를 근간으로 학생 및 국민들에게 널리 보훈의식 함양하고 특히 보훈교육을 강화하여 국가 위기 시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희생정신과 애국심 함양에 정신적 동기부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가보훈처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보훈의식지수이다. 최근 보훈의식 수준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는 2009년 보훈의식지수 현황을 분석하면 2009년 64.0점, 2008년 61.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훈의식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보훈가족의 경우가 보훈가족이 아닌 경우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국가보훈처, 2009). 국가보훈처 2004년도 청소년 호국·보훈의식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가 위기 시 참여 의사는 59.9%에 불과하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쟁이 나면 앞장서 싸우겠느냐는 질문에 청소년들의 10.2%만 그렇다고 하여 심각한 안보 및 보훈의식을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 열 명 중 한 명은 전쟁이 발생하면 외국으로 출국하겠다고 응답하여 매우 낮은 보훈의식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청소년의 국가유공자에 관한 관심도는 68.3%였으며, 현충일 날 집에서 쉬겠다고 75.6%로 현충일을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의 보훈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가 주로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되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특성별 보훈인물, 보훈단체, 기념일의 인식도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생들의 각 특성별 호국보훈에 대한 인물, 기념일, 단체 및 기관에 대해 인식도를 분석하며 대학생들의 인식에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여 향후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교육지원법 제정 시 참고자료와 대학생들의 보훈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훈의식 인식도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훈의식지수와 안보의식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보훈교육지원법 제정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호국보훈인물의 보훈의식 인식도를 파악한다. 셋째, 국가 기념일의 인식도 수준을 제시하고, 넷째, 보훈단체 및 시설 인식도를 분석한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각 특성별 보훈의식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보훈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이론적 근거

#### 1) Rest J. R의 4대 모형이론(Rest 4 component model)

보훈의식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은 다른 분야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훈인식 및 의식과 관련된 분야로는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으로 윤리적 이론들이 적절한데 이모형은 도덕행위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내적 과정들을 나타내는데 사람이 특별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분석의 주요 단위들이다(박균열, 2010). 세부적인 4대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제 1요소는 상황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행동이 필요 시 신속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도덕적 민감성을 의미하고 제 2요소는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도덕적 판단을 의미한다. 제 3요소는 행동의 결과를 알고 있고 여러 행동들이 선택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왜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의 도덕적 동기화를 말하며 제 4요소는 위협하고 불의의 곤경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방심과 다른 유혹들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종 목적을 마음속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을 의미한다(Rest, 1979).

#### 2) 전통적 덕목중심과 J. Piaget의 인지발달의 중용이론

전통적인 덕목 중심과 인지발달론 사이의 중용적인 입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J.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을 L. Kohlberg에 주창되어 사용되었는데 전통적으로 덕목중심의 접근은 한 사회나 문화가 제시하는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나 가치를 내면화하거나 주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한 가치나 도덕을 습득하는 과정은 특정한 인물 집단 혹은 사회와 동일시하는 과정으로서 사용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훈화, 모델링, 강화 등이 있다. 그의 도덕교육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 교실에서 토론식 수업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고 둘째, 도덕적 학교 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접근법이다(박균열, 2010).

#### 3) Lickona의 통합인격교육(Integrated Character Education)

덕목교육이 갖는 강압성이 반성적으로 고려되고 인지발달이론이 갖는 인지중심의 편협성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이론으로 주요 내용은 도덕적 인지, 감정, 행동으로 구분되는데 도덕적 인지는 도덕적 인식, 도덕적 가치 인식, 입장채택, 도덕적 추론, 의사결정, 자기인식이 주된 항목이다. 도덕적 감정은 양심, 자존감, 감정이입, 선을 사랑하는 것, 자아통제, 겸양이 주요 내용이다. 도덕적 행동은 능력, 의지, 습관을 해당 영역의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Lickona, 1998).

## 2. 보훈의 역사와 정책

한국의 보훈역사 및 제도를 살펴보면 신라시대에는 상사서, 고려시대에는 고공사, 조선시대에는 충훈부 및 입직제도를 두어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미망인과 유족들에게도 보상, 의료, 교육, 현충, 복지 등 종합적인 보훈정책을 펼쳐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주요 통치이념의 근간으로 삼았다.

### 1) 신라시대

신라시대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포상과 벼슬을 내리는 제도로 상사서라는 보훈제도가 있어 국민통합과 국력 신장의 정신적 큰 지주로 널리 활용하였다. 한편, 삼국사기 김유신편의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 문무왕 8년 668년에 특별한 상을 내거는데 문무왕은 김유신에게 “만일 공의 한 집안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흥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하여 태대각간의 직위와 식읍 오백호를 주었으며 이에 수레와 지팡이를 하사하고 대궐을 오름에 있어 몸을 굽히지 않도록 여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삼국사기, <http://omega33.egloos.com>; 김종성, 2012).

###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고공사라는 제도가 있어 각종 전장에서 국가를 위해 전사한 전몰자를 위해 국가에서 제사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 공헌이 있는 유공자는 죽어서도 예우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고 특히 보훈정책이 국정을 다스리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다. 한편 문헌 기록에 의하면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내린 교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공은 실로 태조의 개국 공신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황하가 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솟돌과 같이 작게 되도록 공을 잊기 어려워 벽상에 얼굴을 그리고 그 부모와 처에게 작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을 주고 죄를 면하게 함은 10대까지 미치게 하라”고 교서를 내렸다고 전해진다(삼국사기, <http://omega33.egloos.com>; 김종성, 2012).

### 3) 조선시대

조선시대 충훈부라는 제도가 있어 나라에 공훈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예우, 보상, 취업, 교육, 등 극진히 예우함으로써 국가의 중요 정치이념으로 삼았다. 정조가 작성한 “충무공 이순신 신도비문”의 기록을 살펴보면 살았을 때는 수레와 옷을 주어 영화롭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무하고 음악을 널리 빛내며 죽은 뒤에는 다섯 술의 용승한 제물과 제사를 올리며 대대로 녹을 내려 봉양하게 하고 그 공로를 새겨 천지에 빛나게 하라” 임금이 신하에게 비문을 쓴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을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입직제도”라 하는데 이 제도는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에 왕을 호위하는 특수부대를 설치하여 공신들의 자제들은 시험 없이 입대할 수 있게 하고 일정기간 복무 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군 중 충의위는 정공신의 자제, 충찬위, 충익위는 원종공신 자제, 충장위는 지방의 전사자의 자제를 입대 대상으로 하였다(삼국사기, <http://omega33.egloos.com>; 김종성, 2012).

### 3. 선행연구 분석

국내 보훈인식 및 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김태훈(2006)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학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호국·보훈 교육이 약화되어 전쟁발생시 참여도 수준이 초등학생 66.8%, 중학생 55.9%, 고등학생 39.8%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전쟁참여도는 낮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보훈의식 연구는 김예슬 외(2008)의 연구가 대표적인 논문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훈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에서 인지적 태도, 정의적, 행동적 태도별로 인과관계와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외 유영옥(2007)의 청소년의 호국보훈의식 함양 방안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 연구와 전신욱(2008)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독립기념관, 국립현충원 등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훈문화정책의 선진화 방안 모색하기 위한 보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논문이 있다(오일환, 2009). 국외 연구는 보훈의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연구한 논문은 크게 없으나 보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애국심 및 자긍심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Tyler(2006)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국가의 일체감과 자긍심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Newton(2007)의 경우 국가의 제도적 규범이나 여건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자긍심 및 애국심이 증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Jeannotte & Aizlewood(1999)의 개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국민적 자긍심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고, Macintyre & Torgler(2011)의 연구에서는 국민적 자긍심과 보훈의식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력이 높을수록 보훈의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 III. 연구 방법 및 결과

####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 조사대상자는 경기지역 1개 대학, 대구지역 4개 대학 대학생 총 305명을 대상으로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보건간호계열 각 전공에 따라 호국보훈인물, 보훈·민주화 기념일, 보훈시설 및 단체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내용의 조사 방법은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였고, 리커트(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은 설문에 응한 305명중 측정값의 오류 및 표기 불성실로 보이는 표본 4개를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한 자료는 301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 내용

본 조사의 보훈인물에 대한 연구는 국가보훈처 2010~2012년 이달의 호국보훈인물로 선정된 박은식, 김좌진, 홍범도, 이강년, 이소응, 지청천, 노응규, 최익현, 안규홍, 김구, 민공호, 이준, 조만식, 민영환, 신채호, 양기탁, 백정기, 이동녕, 이육사, 이회영, 김동삼, 김규식, 이상재, 노백림 총 24명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보훈·민주화 기념일은 정부기념일을 중심으로 2.28, 3.1, 3.15, 4.13, 4.19, 5.18, 6.6, 6.10, 6.25, 6.29, 8.15, 10.1, 10.8, 11.7 총 14개 기념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훈시설 및 단체는 국가유공자를 관장하는 의료 현충시설을 중심으로 단체는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공법보훈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보훈병원, 보훈교육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보훈휴양원, 국가보훈처, 현충원, 호국원, 독립기념관,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총16개기관 및 단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처리와 결과의 분석은 SPSS/PC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영역별 점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T-test와 Oneway-ANOVA 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 Analysis)의 경우 사후검증(Post-Hoc)은 Duncan법을 사용하였고, 사용대상은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 Analysis) 대상자에 한해 분석하였고,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항목은 표기하지 않았다. 한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대학생들의 보훈의식수준이고 독립 변수는 세대, 계열, 성별, 학년, 직업, 등록금조달, 보훈과목수강 유무, 주거형태, 종교 등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 중 세대와 학년을 제외한 질적변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였으며, 그리고 대학생들의 보훈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분석

##### 1) 연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기지역,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을 305명을 대상으로 연구의뢰 하였으나 내용 표기가 잘못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완성된 설문지 3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특성별 세부 항목 빈도를 분석하면 성별은 남자 96명, 여자 205명이었고, 세대는 2대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의 전공 분류는 인문사회 113명, 자연계 15명, 보건의료계 173명으로 분석되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15명, 2학년 81명, 3학년 73명, 4학년 32명 순이었다. 부모직업은 자영업 115명, 회사원 108명이었고 학비조달은 부모지원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자금대출 58명, 아르바이트 27명으로 조사되었다. 보훈 및 역사과목 수강 여부는 수강한 경험이 있다가 210명, 없다가 91명으로 분석되었고 주거형태는 자가주택이 178명, 월세 51명, 전세 48명순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

<표 1>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n)	퍼센트(%)
성별	남	96	31.9
	여	205	68.1
세대	혼자산다	46	15.3
	배우자 둘이서 산다	11	3.7
	2대가 산다	206	68.4
	3대가 산다	16	5.3
	기타	22	7.3
계열	인문사회	113	37.5
	자연공학	15	5.0
	보건의료	173	57.5
학년	1학년	115	38.2
	2학년	81	26.9
	3학년	73	24.3
	4학년	32	10.6
부모직업	무직	9	3.0
	자영업	115	38.2
	농업	8	2.7
	회사원	108	35.9
	공무원(교사)	20	6.6
	기타	41	13.6
등록금조달	부모지원	196	65.1
	아르바이트	27	9.0
	학자금 대출	58	19.3
	기타	20	6.6

<표 1>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계속)

변수	빈도(n)	퍼센트(%)
보훈과목 수강유무	있다	69.8
	없다	30.2
주거형태	자가주택	59.1
	전세	15.9
	월세	16.9
	영구임대	2.3
	기타	5.6
종교	종교없음	60.8
	불교	14.0
	개신교	14.3
	가톨릭	9.3
	기타	1.7

2) 일반적 특성별 보훈인물 인식도 수준 분석

일반적 특성별 보훈인물 인식도 수준 분석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2.6점 여자 2.3점으로 남자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p<0.001). 세대별 분석에서 단신세대가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3세대 2.4점, 2세대 2.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전공별 인식도를 분석은 인문사회 계열이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 2.4점, 보건의료계열 2.2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p<0.001). 학년별 인식도는 4학년 2.7점, 3학년 2.4점, 1학년 2.2점으로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 분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부모 직업에 따른 인식도 분석은 무직이 2.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 2.4점, 농업 회사원 각각 2.3점순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 수준은 아니었다. 보훈 및 역사과목 수강 경험별 분석에서는 수강 경험자가 2.8점, 비수강자 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p<0.001). 주거형태별 분석에서 전세가 2.6점, 월세 2.4점, 자가주택 2.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종교별 인식도 분석은 개신교가 2.5점, 카톨릭 2.4점, 무교 2.3점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표 2> 일반적 특성별 보훈인물 인식도 분석

변수	구분	N	Mean	SD	F,t	p-value	Post-Hoc
성별	남	96	2.62	.82	3.804	.000	-
	여	205	2.28	.69			
세대	단신세대	46	2.69	.92	2.865	.024	B
	부부세대	11	2.37	.61			AB
	2세대	206	2.35	.71			AB
	3세대	16	2.41	.60			AB
	기타	22	2.12	.73			A
계열	인문사회	113	2.74	.73	23.617	.000	B
	자연공학	15	2.38	.61			A
	보건의료	173	2.16	.68			A

<표 2> 일반적 특성별 보훈인물 인식도 분석(계속)

변수	구분	N	Mean	SD	F,t	p-value	Post-Hoc
학년	1학년	115	2.23	.69	4.252	.006	A
	2학년	81	2.45	.75			A
	3학년	73	2.41	.76			A
	4학년	32	2.73	.80			B
부모직업	무직	9	2.77	1.12	.837	.524	-
	자영업	115	2.42	.74			
	농업	8	2.38	1.17			
	회사원	108	2.38	.73			
	공무원	20	2.34	.68			
	기타	41	2.24	.66			
보훈역사 과목수강	있다	91	2.79	.77	6.489	.000	-
	없다	210	2.21	.67			
주거형태	자가주택	178	2.32	.65	1.389	.238	-
	전세	48	2.56	.94			
	월세	51	2.43	.87			
	영구임대	7	2.13	.57			
	기타	17	2.52	.78			
종교	종교없음	183	2.35	.70	.925	.449	-
	불교	42	2.36	.79			
	개신교	43	2.50	.84			
	가톨릭	28	2.37	.75			
	기타	5	2.89	1.06			

※ \*\*P<.01, \*\*\*P<.001

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인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인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요 요인으로 학생 전공계열별(P<.001), 등록금조달 유형별(P<.05), 보훈과목 수강 경험별(P<.01), 주거형태별(P<.001)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표 3> 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인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보훈인물			t	R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성별	.061	.105	.038	.580	.496	
세대	-.068	.043	-.090	-1.590		
계열	자연공학	-.155	.196	-.045		-.792
	보건의료	-.424	.113	-.281		-3.760***
학년	-.012	.045	-.016	-.262		

<표 3> 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인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계속)

독립변수		보훈인물				R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직업	자영업	-.180	.249	-.117	-.722	.496
	농업	-.170	.348	-.037	-.489	
	회사원	-.155	.249	-.100	-.625	
	교사	-.378	.292	-.126	-1.292	
	기타	-.249	.264	-.115	-.944	
등록금	아르바이트	.073	.149	.028	.493	
	학자금대출	-.245	.106	-.129	-2.305*	
	기타	-.339	.177	-.113	-1.916	
보훈과목수강		.323	.107	.198	3.028**	
주거 형태	전세	.375	.116	.184	3.247***	
	월세	-.005	.117	-.002	-.042	
	영구임대	.148	.280	.030	.529	
	기타	.150	.178	.046	.842	
종교	불교	-.020	.118	-.009	-.167	
	개신교	-.011	.118	-.005	-.097	
	가톨릭	-.028	.140	-.011	-.200	
	기타	.214	.319	.037	.672	
		F=4.124***		R2=.246		

※ \*P<.05, \*\*P<.01, \*\*\*P<.001, 성별(0=여, 1=남), 계열(0=인문사회, 1=자연공학, 2=보건의료), 직업(0=무직, 1=자영업, 2=농업, 3=회사원, 4=교사, 5=기타), 등록금(0=부모님, 1=아르바이트, 2=학자금대출, 3=기타), 보훈과목수강(0=무, 1=유), 주거형태(0=자가주택, 1=전세, 2=월세, 3=임대, 4=기타), 종교(0=무교, 1=불교, 2=개신교, 3=가톨릭, 4=기타).

#### 4) 일반적 특성별 보훈기념일 인식도 수준 분석

일반적 특성별 보훈기념일 인식도 수준 분석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3.6점 여자 3.2점으로 남자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p<0.001). 세대별 분석에서 단신세대가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부세대 3.5점, 2세대 3.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별 인식도를 분석은 인문사회 계열이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 3.4점, 보건의료 3.1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학년별 인식도는 4학년 3.7점, 3학년 3.3점, 2학년 3.5점, 1학년 3.2점으로 통계적 유의성 분석에도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보훈 및 역사과목 수강 경험별 분석에서는 수강 경험자가 3.7점, 비수강자 3.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p<0.001)(<표4>).

<표4> 일반적 특성별 보훈기념일 인식도 분석

	구분	N	Mean	SD	F,t	p-vale	Post-Hoc
성별	남	96	3.61	.65	4.847	.000	-
	여	205	3.23	.65			
세대	단신세대	46	3.57	.77	2.043	.088	-
	부부세대	11	3.53	.32			
	2세대	206	3.32	.65			
	3세대	16	3.23	.60			
	기타	22	3.19	.70			
계열	인문사회	113	3.65	.62	22.446	.000	A
	자연공학	15	3.43	.70			AB
	보건의료	173	3.14	.63			A
학년	1학년	115	3.18	.65	6.899	.000	A
	2학년	81	3.50	.65			BC
	3학년	73	3.31	.69			AB
	4학년	32	3.67	.55			C
부모직업	무직	9	3.59	.77	1.483	.195	-
	자영업	115	3.36	.68			
	농업	8	3.45	.74			
	회사원	108	3.39	.62			
	공무원	20	3.42	.56			
	기타	41	3.11	.77			
보훈역사 과목수강	있다	91	3.69	.63	6.215	.000	-
	없다	210	3.20	.63			
주거형태	자가주택	178	3.29	.66	1.014	.401	-
	전세	48	3.45	.67			
	월세	51	3.46	.71			
	영구임대	7	3.27	.48			
	기타	17	3.37	.71			
종교	종교없음	183	3.29	.65	1.225	.300	-
	불교	42	3.47	.70			
	개신교	43	3.42	.75			
	가톨릭	28	3.40	.67			
	기타	5	3.69	.59			

※ \*\*\*P<.001

5)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기념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기념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요 변인으로 학생 전공계열별(P<.01), 등록금조달 유형별(P<.05), 보훈과목 수강 경험별(P<.01), 주거 형태별(P<.01)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기념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보훈기념일				R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성별	.112	.094	.078	1.193	.498	
세대	-.035	.038	-.052	-.925		
계열	자연공학	-.020	.175	-.007		-.116
	보건의료	-.315	.101	-.232		-3.115**
학년	-.005	.040	-.007	-.119		
직업	자영업	.036	.223	.026		.160
	농업	.236	.312	.057		.758
	회사원	.112	.223	.080		.503
	교사	.033	.262	.012		.127
	기타	-.157	.237	-.080		-.664
등록금	아르바이트	.254	.133	.108		1.907
	학자금대출	-.202	.095	-.119		-2.119*
	기타	-.107	.159	-.040		-.672
보훈과목수강		.268	.095	.184		2.805**
주거 형태	전세	.303	.104	.166		2.930**
	월세	.102	.105	.057		.970
	영구임대	.338	.251	.076		1.346
	기타	.091	.159	.031		.574
종교	불교	.179	.106	.093		1.692
	개신교	.009	.106	.005		.082
	가톨릭	.079	.126	.034		.631
	기타	.220	.286	.042	.772	
		F=4.166***	R2=.248			

※ P<.05, \*\*P<.01. 성별(0=여, 1=남), 계열(0=인문사회, 1=자연공학, 2=보건의료), 직업(0=무직, 1=자영업, 2=농업, 3=회사원, 4=교사, 5=기타), 등록금(0=부모님, 1=아르바이트, 2=학자금대출, 3=기타), 보훈과목수강(0=무, 1=유), 주거형태(0=자가주택, 1=전세, 2=월세, 3=임대, 4=기타), 종교(0=무교, 1=불교, 2=개신교, 3=가톨릭, 4=기타).

6) 일반적 특성별 보훈시설 및 단체 인식도 수준 분석

일반적 특성별 보훈시설 및 단체 인식도 수준 분석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2.8점 여자 2.4점으로 남자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p<.001). 학년 별 인식도는 4학년 2.7점, 3학년 2.6점, 2학년 2.5점, 1학년 2.3점 순으로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유의성 분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보훈 및 역사과목 수강 경험별 분석에서는 수강 경험자가 2.7점, 비수강자 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p<.001). 일반적 특성별 보훈시설 및 단체 인식도 수준 분석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인식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훈교육 및 나라사랑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표 6>).

<표 6> 일반적 특성별 보훈 시설 및 단체 인식도 분석

	구분	N	Mean	SD	F,t	p-vale	Post-Hoc
성별	남	96	2.75	.75	4.607	.000	-
	여	205	2.37	.62			
세대	단신세대	46	2.73	.91	2.222	.067	-
	부부세대	11	2.56	.52			
	2세대	206	2.44	.65			
	3세대	16	2.63	.60			
	기타	22	2.31	.59			
계열	인문사회	113	2.59	.72	1.821	.164	-
	자연공학	15	2.44	.61			
	보건의료	173	2.43	.67			
학년	1학년	115	2.34	.64	3.409	.018	A
	2학년	81	2.52	.65			AB
	3학년	73	2.62	.73			B
	4학년	32	2.65	.78			B
부모직업	무직	9	2.46	.97	.620	.685	-
	자영업	115	2.57	.73			
	농업	8	2.45	1.20			
	회사원	108	2.47	.55			
	공무원	20	2.41	.66			
	기타	41	2.38	.73			
보훈역사 과목수강	있다	91	2.69	.75	3.393	.001	-
	없다	210	2.41	.64			
주거형태	자가주택	178	2.46	.64	.435	.783	-
	전세	48	2.50	.76			
	월세	51	2.56	.80			
	영구임대	7	2.39	.71			
	기타	17	2.64	.69			
종교	종교없음	183	2.48	.66	.877	.478	-
	불교	42	2.46	.79			
	개신교	43	2.48	.72			
	가톨릭	28	2.58	.62			
	기타	5	3.01	.99			

※ \*P<.05, \*\*\*P<.001

7)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시설 및 단체 인식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시설 및 단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분석한 결과 주요 요인으로 성별(P<.001), 보훈과목 수강 경험별(P<.01)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표 7>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시설 및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보훈시설				R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성별	.342	.104	.231	3.294***	.355	
세대	-.050	.042	-.071	-1.175		
계열	자연공학	-.040	.194	-.013		-.207
	보건의료	.164	.112	.118		1.470
학년	.057	.044	.085	1.282		
직업	자영업	.232	.247	.164		.938
	농업	.194	.345	.045		.561
	회사원	.172	.247	.120		.695
	교사	.107	.290	.039		.369
	기타	.112	.262	.056		.426
등록금	아르바이트	.175	.148	.073		1.188
	학자금대출	-.018	.105	-.010		-.170
	기타	-.102	.176	-.037		-.581
보훈과목수강	.222	.106	.148	2.099**		
주거 형태	전세	.085	.115	.045		.744
	월세	.002	.116	.001		.020
	영구임대	.163	.278	.036		.587
	기타	.188	.176	.063		1.068
종교	불교	-.043	.117	-.022		-.365
	개신교	-.118	.117	-.060		-1.008
	가톨릭	.044	.139	.018	.314	
	기타	.296	.316	.055	.936	
		F=1.828*	R2=.126			

※ \*\*P<.01, \*\*\*P<.001. 성별(0=여, 1=남), 계열(0=인문사회, 1=자연공학, 2=보건의료), 직업(0=무직, 1=자영업, 2=농업, 3=회사원, 4=교사, 5=기타), 등록금(0=부모님, 1=아르바이트, 2=학자금대출, 3=기타), 보훈과목수강(0=무, 1=유), 주거형태(0=자가주택, 1=전세, 2=월세, 3=임대, 4=기타), 종교(0=무교, 1=불교, 2=개신교, 3=가톨릭, 4=기타)

#### IV. 결론 및 함의

최근 불어지고 있는 남북한의 극도의 긴장 국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대학생들의 보훈의식 수준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나라사랑정신과 관련하여 국민자긍심에 관한 국제 비교 사례를 분석해 보면 Smith, et. al.(2006)는 2003-2004년 세계 33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자부심을 조사한 결과에서 22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김재은(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력수준은 세계 10위 수준이었으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자긍심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서운석(2009a)의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국민의 보훈의식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행복감, 인식, 군대, 정부신뢰, 인식이 보훈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인권존중 의식과 행복감 그리고 민주주의 중요성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전이지

에 대한 동서양 주요 국가의 비교연구 결과를 보면 참전의지 비율이 한국의 경우 72-82%, 중국 86-92%, 미국 62-73%, 영국 62-68%, 일본 21%-35%, 사이를 보였다(서운석, 2009b).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6.25전쟁에 대해 어느 정도 배웠는지 파악 질문에 충분히 배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초등학생 경우 48.1%, 중학생 경우 23.4%, 고등학생 경우 16.9% 나타났다. 그리고 김태훈(2006)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호국·안보의식 실태를 분석하면 학생들은 호국·보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계가 교과서 반영 28.7% 선생님 분회 34.1%, 보훈행사 참석 29.8%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있고 학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호국·보훈 교육이 약화돼 전쟁 발생 시 참여도 초등학생 66.8%, 중학생 55.9%, 고등학생 39.8%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전쟁참여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김예술 외(2008)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훈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에 관한 논의에서 보훈관련 인지적 태도, 정의적 행동적 태도 등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보훈관련 인지적 태도가 행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행동도 적극적임을 알 수 있고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의 보훈의식 향상은 보훈행사 참여 등과 같은 보훈 관련 실제 행동을 유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 모든 내용을 종합정리해보면 한국의 중등 대학생들의 보훈인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낮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보훈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내용을 각 특성별로 논의해 보면 일반적 특성별 보훈인물의 의식 수준 분석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2.6점 여자 2.3점으로 남자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p < 0.001$ ). 이는 Smith, *et. al.*(2001)의 선행연구에서 보훈의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다민족 국가에서는 주류민족이 소수민족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은 보훈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군복무 경험을 하고 특히 전쟁 상황 대비해 국가관이나 안보에 대한 현실 인식 및 학습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세대별 분석에서 단신세대가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3세대 2.4점, 2세대 2.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전공별 인식도를 분석은 인문사회 계열이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 2.4점, 보건의료 2.2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 $p < 0.001$ ). 학년별 인식도는 4학년 2.7점, 3학년 2.4점, 1학년 2.2점순으로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 분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5$ ). 서운석(2008)의 연구에서는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훈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보훈의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운석(2011)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보훈대상자와 관련이 있을수록 보훈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보훈 감성이 높을수록 보훈의식 수준도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훈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고소득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한다(서운석, 2011). 부모 직업에 따른 인식도 분석은 무직이 2.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

2.4점, 농업 회사원 각각 2.3점순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 수준은 아니었다. 보훈 및 역사과목 수강 경험별 분석에서는 수강 경험자가 2.8점, 비수강자 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p < 0.001$ ). 이는 보훈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이유는 경험으로 인해 나라사랑 및 애국심 함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써 보훈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짐작된다. 주거형태별 분석에서 전세가 2.6점, 월세 2.4점, 자가주택 2.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종교별 인식도 분석은 개신교가 2.5점, 카톨릭 2.4점, 무교 2.3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 시설 및 단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요 요인으로 성별( $P < .001$ ), 보훈과목 수강 경험별( $P < .05$ )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훈기념일 인식도 수준 분석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3.6점 여자 3.2점으로 남자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p < 0.001$ ). 세대별 분석에서 단신세대가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부세대 3.5점, 2세대 3.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별 인식도를 분석은 인문사회 계열이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 3.4점, 보건의로 3.1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01$ ). 학년별 인식도는 4학년 3.7점, 3학년 3.3점, 2학년 3.5점, 1학년 3.2점으로 통계적 유의성 분석에도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01$ ). 보훈 및 역사과목 수강 경험별 분석에서는 수강 경험자가 3.7점, 비수강자 3.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p < 0.001$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인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요 요인으로 학생 전공계열별( $P < .001$ ), 보훈과목 수강 경험별( $P < .01$ )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훈시설 및 단체 인식도 수준 분석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2.8점 여자 2.4점으로 남자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p < 0.001$ ). 학년별 인식도는 4학년 2.7점, 3학년 2.6점, 2학년 2.5점, 1학년 2.3점순으로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유의성 분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5$ ). 보훈 및 역사과목 수강 경험별 분석에서는 수강 경험자가 2.7점, 비수강자 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p < 0.001$ ). 일반적 특성별 보훈시설 및 단체 인식도 수준 분석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인식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훈교육 및 나라사랑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보훈기념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요 요인으로 학생 전공계열별( $P < .01$ ), 보훈과목 수강 경험별( $P < .01$ )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각 특성별 공통적으로 경우 남녀별로 보훈인식에 대한 유의한 차이점을 보였고, 특히 보훈관련 교과목의 수강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검증되어 교육기관에 보훈교과목 설치를 위한 보훈교육지원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 보훈의식 함양에 대해 종합적인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훈처는 학생들의 애국심 함양과 보훈교육을 위해 학계, 공무원, 보훈전문가를 중심으로한 보훈교육 T/F-team을 구성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훈교육지원법을 근간으로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보훈교과목을 일차적으로 선택과목으로, 2017년부터 필수과

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한국의 보훈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보훈교육연구원으로 주요 업무가 보훈교육과 연구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초·중·고 보훈교육을 기획 및 모니터링하고 보훈교육을 총괄하는 한국보훈교육원을 신설하고 직급을 이사급으로 격상시켜 보훈교육의 위상을 정립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 시범학교를 2013. 7. 30일 현재 초·중·고등학교 20여개에 불과하며 2014년도엔 100여개로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나라사랑교육 중심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에 필요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보훈교육을 실천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한 에듀테인먼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향후 보훈 교육관련 수업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다섯째, 호국보훈의 달에 한국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를 전문 특강강사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보훈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창의체험교실 운영 시 관련 조례를 만들어 2014년부터 보훈교육을 수업 과정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훈 및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홍보과, 나라사랑지원과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내에 있는 나라사랑정책과, 나라사랑교육과를 분리하여 나라사랑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지방보훈청에 보훈교육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지 못해 표본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전공 및 학년 배분에서 균등한 배분을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 수행 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존의 대부분 연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연구는 국가위기 발생 시 즉시 참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세분화된 보훈인물, 기념일 보훈단체 및 시설에 대한 인식도 분석과 각 특성별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분석한 논문으로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있다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훈인식 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논문이 국가보훈처가 현재 행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훈교육지원법 법률안 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2009. 국민보훈의식지수. 서울: 국가보훈처.
- 김종성. 2005. 한국보훈정책론. 서울: 일진사.
- 김종성. 2012. 보훈의 역사와 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 김재은. 2005. 한국인의 국민의식. 중앙일보(3월 15일).
- 김태훈, 서강식, 이범웅, 박찬석. 2006.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의 호국·안보의식 실태분석.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지. 22: 128-157.
- 김예솔 외. 2008. 대학생의 보훈의식 향상에 관한 실증 연구. 국가보훈처 보훈학술논문집. 10: 1-39.

- 박균열. 2010. 국가보훈의식지수 개발. *윤리교육연구*. 23: 305-330.
- 보훈교육연구원. 2010. 국민보훈의식조사 및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 의식조사 설문문항. (재)설계 수월: 보훈교육연구원.
- 삼국사기. [http:// omega 33.egloos. com](http://omega.33.egloos.com).
- 서운석. 2011. 한국민의 보훈의식에 대한 인과구조 분석. *사회학연구*. 35(1): 184-210.
- 서운석. 2009a. 국민 자부심에 대한 한·중·일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연구*. 2(1): 165-187.
- 서운석. 2009b. 국민의 전쟁참여 의지에 대한 국가별 영향요인 분석. *정책연구*. 16(1): 97-133.
- 서운석. 2008.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특성 분석. *한국보훈논총*. 7(1): 29-63.
- 성혜란, 양진명, 한봉수. 2006. 국민 보훈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국가보훈처 보훈학술논문집*. 161-188
- 오일환. 2009. 보훈문화정책의 선진화 방향 모색.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유영욱. 2007. 청소년들의 보훈의식 함양 방향. *한국보훈학회 춘계세미나 발표자료*.
- 유재왕. 2003. 생활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훈문화 확산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보훈학술논문집*. 5: 377-402.
- 진신욱. 2008.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용 방안. *한국보훈논총*. 7(2): 5-41.
- 한국보훈학회. 2003. 보훈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훈학회.
- Lickona, T. 1998. A More Complex Analysis is Needed. *Phi Delta Kappan*. 79: 449-455.
- Jeannotte, S and A. Aizlewood. 1999. *Drifting Away? Canadian Trust, Hope and Pride in a Global Economy*.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 Macintyre, A. and B. Torgler. 2011. *National Pride, National Identity and Economic Decision*. [www.pubchoicesoc.org/papers\\_2011/](http://www.pubchoicesoc.org/papers_2011/).
- Newton, K. 2007.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st, J. R. 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mith, et. al. 2006. National Pride in Comparative Perspective:1995/96 and 20004/04,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127-136
- Smith, et. al. 2001. *National Prid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Tyler, T. R. 2006.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375-400.

학회이사, 감사역임, 현 대구지회장, 한국인간안보학회이사, 한국보훈논총 편집위원, 보건정보관리학회 논문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영남이공대학 보건복지학부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로샤를 이용한 베트남 참전군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2009)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 효율적인 응급의료구축 체계구축 방안(2010), 한국전 노근리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의 보상에 관한 연구(2012), 특수임무수행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연구(2013)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로는 고엽제질환, 전염병 및 인플루엔자정책, 재난대비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보훈의료정책 등이 있다(ktypv@naver.com).

투 고 일: 2013년 08월 03일

수 정 일: 2013년 08월 25일

게재확정일: 2013년 08월 28일

##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Veterans Related to Security Crisis of University Students

Tae Yeol Kim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by the promotion of patriotism and veterans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suggest to level analysis of Veterans Persons Recognition, a Memory day, Facility and Community about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questionaque methods was performed by Likert five point scale major focus was social domographic a characters of University Student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ffer the basic data to the promotion patriotism and security spirit which concern University Students. The major result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tly differents analysis about Veterans Persons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by social domographic special characters was shown significantly higher( $P<0.05$ ,  $P<0.01$ ,  $P<0.001$ ) the sex( $P<0.001$ ) the category of a generation family( $P<0.01$ ), a special study division( $P<0.001$ ) study grade division( $P<0.05$ ) veteran subject experience( $P<0.001$ ). Second, The significantly differents analysis about a memory day of University Students by social domographic special characters was shown significantly higher( $P<0.001$ ) the sex( $P<0.001$ ), a special study division( $P<0.001$ ), study grade division( $P<0.001$ ) veteran subject experience( $P<0.001$ ). Third, The significantly differents analysis about Veterans Facility and Community of University Students by social domographic special characters was shown significantly higher( $P<0.05$ ,  $P<0.001$ ) the sex( $P<0.001$ ), study grade division( $P<0.05$ ) veteran subject experience( $P<0.001$ ).

**key words:** veterans consciousness, veterans persons recognition, a memory day